

2013년 APEC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정 철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cchung@kiep.go.kr, Tel: 3460-1184)

임경수 APEC 연구컨소시엄 연구원(kslim@kiep.go.kr, Tel: 3460-1031)

엄준현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원(jheom@kiep.go.kr, Tel: 3460-1149)

차 례 ●●●

1. 2013년 APEC 정상회의 개요
2. 주요 논의결과
3. 향후 전망과 과제
4. 한국의 역할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3년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아래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세 개의 의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의 확대와 인프라 개발·투자가 강조되었음.
- ▶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과 관련, APEC 정상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통해 APEC이 다자무역체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강조하는 한편, 2020년까지 보고르목표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해 역내 경제와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
- ▶ 연계성 제고 측면에서는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물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통해 회원국의 투자환경 개선, 민관협력 촉진,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작업을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임.
- ▶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의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구조 개혁,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의 이행을 통한 식량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해양이슈의 주 의제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 향후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회원국간 FTA 추진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역내 무역협정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APEC 환경상품 자유화 실행과 공급망 연결 개선에 필요한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 우리나라는 APEC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역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을 조화시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APEC이 실질적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협약체로서 기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상품의 역량강화사업과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2013년 APEC 정상회의 개요

- 2013년 10월 7~8일 APEC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성장의 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이라는 주제 하에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Suppor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ttaining the Bogor Goals)’ , ‘연계성 제고 (Promoting Connectivity)’ ,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 with Equity)’이라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¹⁾
 - APEC 정상들은 지난 1994년의 보고르 정상회의 이후 19년 만에 다시 찾은 인도네시아에서 보고르목표 이행을 강조하고,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MC9)를 계기로 DDA 협상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별도의 선언문을 발표함.
 - 1994년 보고르선언(Bogor Declaration)을 통해 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무역투자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보고르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에는 보고르목표 점검표(APEC’s Bogor Goals Dashboard)를 통해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공급망 연결 개선을 통한 ‘연계성 제고’를 2013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프라 개발·투자를 정상 차원의 추진사업으로 제안하였음.
 - 이와 관련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Connectivity)’와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MYPIDI: APEC Multi 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을 발표함.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는 회원국 정상들이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APEC의 비전과 실천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 APEC은 아태지역의 주요 경제포럼으로서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무역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 통합을 선도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태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함.’²⁾
 - 매년 회원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정상회의 주제(theme)와 의제(priorities)는 그해 의장국의 비전을 반영하여 선정되며, 한 해 동안 산하위원회와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과 추진사업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발표되고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촉구함.
 - APEC 정상들은 1993년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1998년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가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 무역투자 원활화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1) 2013 Leaders’ Declaration(http://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3/2013_aelm.aspx, 2013년 10월 14일 접속).

2) APEC 공식홈페이지에 명시된 Mission Statement(<http://www.apec.org/About-Us/About-APEC/Mission-Statement.aspx>, 2013년 10월 8일 접속).

- 무역투자 원활화 사업은 2009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으로 이어져 2015년까지 역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비용, 시간, 불확실성 측면에서 10% 개선시키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

표 1. APEC 정상회의의 주제와 핵심 내용

회차(연도, 장소)	주제	핵심 내용
제1차 정상회의 (1993, 미국 블레이크 아일랜드)	APEC Leaders Economic Vision Statement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비전 제시
제2차 정상회의 (1994, 인도네시아 보고르)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Common Resolve	보고르선언: 아태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실현 (2010년까지 선진국, 2020년까지 개도국)
제3차 정상회의 (1995, 일본 오사카)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for Action	오사카 실행계획: 보고르목표 실천을 위한 원칙과 9가지 지침 (Guiding Principles) 합의
제4차 정상회의 (1996, 필리핀 마닐라)	From Vision to Action	마닐라 실행계획: 보고르목표 이행 점검수단(공동·개별 실행계획) 마련
제5차 정상회의 (1997, 캐나다 밴쿠버)	Connecting the APEC Community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VSL) 대상 15개 분야 선정
제6차 정상회의 (199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EVSL 우선 추진 9개 분야 합의 및 비회원국으로 확대 방안 모색
제7차 정상회의 (1999, 뉴질랜드 오클랜드)	The Auckland Challenge	서류 없는 무역(무역절차 간소화) 2005년까지 선진국, 2010년까지 개도국 실현 목표 합의 APEC 비즈니스 출장카드 계획 승인
제8차 정상회의 (2000, 브루나이 밴다세리 베가완)	Delivering to the Community	전자 개별실행계획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05년까지 역내 인터넷 접근성 3배 증진
제9차 정상회의 (2001, 중국 상하이)	Meeting New Challenges in the New Century	상하이 합의: APEC 비전 확대, 보고르목표 이행 강화체제 마련 대테러선언문 발표
제10차 정상회의 (2002, 멕시코 로스 카보스)	Expanding the Benefits of Cooper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 Implementing the Vision	무역원활화 실행계획, 무역과 디지털 경제정책, 투명성 표준 채택 역내 안전한 무역 이니셔티브 채택
제11차 정상회의 (2003, 태국 방콕)	A World of Differences: Partnership for the Future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식기반경제 구축 노력과 역내 구조개혁 가속화
제12차 정상회의 (2004, 칠레 산티아고)	One Community, Our Future	산티아고 이니셔티브: 역내 무역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제13차 정상회의 (2005, 대한민국 부산)	Towards One Community: M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부산 로드맵: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제14차 정상회의 (2006, 베트남 하노이)	Towards a Dynamic Comm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	하노이 실행계획: 보고르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역량강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연구 추진

표 1. 계속

회차(연도, 장소)	주제	핵심 내용
제15차 정상회의 (2007, 호주 시드니)	Strengthening Our Community,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2010년까지 추가 5% 무역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두 번째 무역원활화 실행계획 추진
제16차 정상회의 (2008, 페루 리마)	A New Commitment to Asia-Pacific Development	성장과 안정을 위한 경제·금융 조치 단행
제17차 정상회의 (2009, 싱가포르)	Sustaining Growth, Connecting The Region	공급망 연결 프레임워크와 2015년까지 비즈니스 환경 25%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구축 APEC 서비스 실행계획과 환경상품 서비스 작업 프로그램 추진
제18차 정상회의 (2010, 일본 요코하마)	Bogor and Beyond	요코하마비전: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안전하며 견고한 APEC 공동체 건설 보고르목표 이행상황 평가, APEC 투자전략 구축, APEC 신(新)구조개혁 전략 승인 식량안보에 관한 제1차 APEC 장관회의 개최
제19차 정상회의 (2011, 미국 호놀룰루)	Toward a Seamless Regional Economy	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 5% 이하로 감축 2035년까지 총에너지 집약도 45% 감축
제20차 정상회의 (201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RTAs/FTAs 투명성에 대한 APEC 모델챕터 승인 APEC 환경상품리스트 합의 및 승인 식량안보에 관한 카잔선언문 신뢰할 만한 공급망 구축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제21차 정상회의 (2013, 인도네시아 발리)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보고르목표 이행 진전, 다자무역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경쟁력 개선 물적·제도적·인적 연결성 제고,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민관협력사업(PPP)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여성,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경제참여 환경 조성

자료: APEC History(<http://www.apec.org/About-Us/About-APEC/History.aspx>, 2013년 10월 14일 접속)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2. 주요 논의 결과

- 2013년 APEC 정상들은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지난 19년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의 시급성을 확인하였음.
 - 2016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연장하고 기존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균형·포용·지속가능·혁신·안전 성장을 지향하는(2010년 APEC 정상선언에서 제시된) 요코하마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 특히 지역경제통합 및 역내 무역투자를 확대, 촉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연계성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하였음.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달성을 위해 FTA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을 제고하는 FTA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등 2013년 의제 관련 사업의 진전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였음.

- 2013년에는 의제 전반에 걸쳐 민관협력을 강조하였으며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는 여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특히 금융 접근성 제고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o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확대를 독려하고 서비스 무역 증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대 등 무역투자 자유화와 식량안보, 혁신성장 전반에 걸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였음.
- 2012년 의제였던 식량안보는 로드맵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식량안보를 물, 에너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o 또한 식량안보, 빈곤완화, 생물다양성 보호, 무역투자 원활화, 전통문화와 지식보존 측면에서 해양과 해안자원을 비중있게 다루기 위해 이를 주 의제로 하는(mainstreaming)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음.

표 2. 2013년 APEC 정상회의 의제별 주요 논의 결과

의제	주요 논의 결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p>제9차 WTO 각료회의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별도의 선언문 발표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보고르목표 이행 약속 재확인 역내 경제와 시장의 연계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APEC 환경상품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APEC 민관협력 구축 등 역량강화 활동 추진 - 지속가능 성장, 지역발전,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상품무역 모색 - 국내산 부품사용 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 금지 관련 진전사항 평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APEC 모범사례 개발 - APEC 투자활성화계획 이행, 민관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선과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 - 'APEC 혁신과 무역관행' 의 마무리작업과 2011, 2012년에 합의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논의 진전 - 서비스 무역 촉진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대
연계성 제고	<p>2020년까지 보고르목표와 요코하마비전(Bogor and Beyond)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교통망 강화, 거래비용 감축 물적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 추진, APEC 전문가패널 및 민관협력사업센터의 시범 설립 제도적 연계성 증진을 위한 APEC 신(新)구조개혁 전략 진전, 역내 인적교육훈련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국경간 교육사업 추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협력 증진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한 APEC 회원국간 학생, 연구자, 교육자들의 이동성 증진,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 추진, 역내 청소년들의 APEC 참여 프로그램 확대</p>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p>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와 경제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참여 환경 조성 및 구조 개혁, 창업문화 장려, 자금조달 원활화 -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역내 무역금융 관련 협력 강화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내 금융 포용성 확충 -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역할 강화와 민관협력 - APEC 반부패 및 법집행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 강화 - 역내 과학기술 혁신 장려를 위한 정부, 과학자,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자원의 한정성 및 자연과 인간이 초래하는 재해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 마련 - 물, 에너지, 식량안보 간 연계를 고려한 통합정책 추진 - '식량안보 로드맵 2020' 이행,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배격

표 2. 계속

의제	주요 논의 결과
<p>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의 주 의제화 관련 이니셔티브' 논의 지속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역량강화, 자발적 상호평가 체계 개발, 민관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활성화 -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인식 제고 - 의료서비스 확대와 예방 등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및 글로벌 민관보건협력 구축, 저렴한 가격과 용이한 접근성에 입각한 지역사회의 대안 의료로서 전통의료에 대한 이해 증진, 투자, 민관 협력,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HIV 대응 협력 증진 - 재난 발생 후 구호인력 및 물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작업 및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자료: 2013 Leaders' Declaration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가.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 APEC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APEC의 실질적인 기여와 노력을 강조하였음.

- 무역을 통한 성장,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가 규범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다자무역체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 2016년까지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연장하고 보호무역조치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 정상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물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최빈개도국 이슈를 포함한 개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각료회의 이전에 관련 패키지 협상 타결을 촉구하였음.
- WTO 각료회의 이전에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협정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 APEC 정상들은 녹색성장을 증진하고 글로벌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APEC 합의를 기반으로 WTO에서의 환경상품 논의를 제안하였음.

■ 1994년 보고르선언 이후 19년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회동하게 된 APEC 정상들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해 역내 경제와 시장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시하였음.

- 개별 회원국의 여건을 고려하되, 2015년까지 APEC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민관협력(PPEGS: Public Private Partnership 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구축 등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정상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 등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고 APEC 투자활성화 실행계획(APEC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에서의 민관 대화(Public Private Dialogue)를 통해 서비스 무역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나. 연계성 제고

- APEC 정상들은 공급망 연결 개선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높이기로 하고, 물적 연계성에서는 인프라 개발·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교육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인적·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시간, 비용, 불확실성 측면의 공급망 효율성을 10% 개선하기로 한 APEC 공급망 연결 프레임워크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을 통해 역내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절차 및 인적이동 관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보고르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로 하였음.
- 정상들은 물류, 운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물적 연계, 규제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인적 연계에 대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를 부속서 A에 포함하고 2014년까지 관련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표 3. 물적·제도적·인적 연계별 주요 추진사항

구분	주요 추진사항
물적 연계	공급망 효율성을 저해하는 무역장벽 철폐 회원국들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해 무역원활화와 공급망 관련 약속 이행 지원 교역경로 확대, 역내 운송 네트워크의 질적 강화 역내 하부지역(sub-region)의 기존 구조 및 사업계획과 APEC 작업과의 시너지 효과 증진 국경간 에너지 네트워크 상호연결 개선 보편적이고 빠른 광대역 접근성 확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 및 개선
제도적 연계	물류수송 원활화 규제 일관성 및 협력 증진,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구조개혁에 관한 APEC 작업 진전 APEC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개발, 세관 및 통관 관련 기관의 현대화 국경간 금융협력 증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및 활용 증대
인적 연계	국경간 교육·과학·기술혁신·서비스 관련 작업 진전 관광객, 사업가, 전문가, 노동자, 여성, 청년 등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자료: 2013 Leaders' Declaration - Annex A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양질의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인프라 개발·투자를 통한 아태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부속서 B에 추가함.
- 2013~16년에 추진될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MYPIDI)은 각 회원국의 여건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네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음.
- 다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 인도네시아에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인프라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민관협력사업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임.

표 4. APEC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의 협력 분야

협력 분야	분야별 특성화 작업
불확실성 감소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구조 및 규제 개혁, 정책 개발 및 이행, 민관협력사업 규제에 대한 협력 및 일관성 촉진 관련 모범규제관행 계약 관련 법적 안정성 토지 취득, 환경영향평가 관련 모범사례 개발 및 이행 지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부조달 프로세스 개선 APEC 회원국들의 제도 정비
정부의 인프라사업 계획 수립체제 개선	통합된 설계시스템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인프라 설계역량 강화 공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식별
수익성 있는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역량 강화	회원국 특성에 따른 맞춤형 PPP 설립 수익성 높은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체제 논의 및 관련 모범사례 공유 인프라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작업에 대한 정부역량 강화 부문별 전문지식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적정가격 책정 인프라사업 설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검토를 위해 정부의 전문지식 확충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 분야의 규제, 모니터링, 감독역량 강화 수익성 있는 PPP 사업 제안서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지통화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등 금융 메커니즘과 제도 구축 현지통화를 활용한 장기금융 지원 장기투자 비전을 제시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참여와 자본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장치 및 모델 개발

자료: 2013 Leaders' Declaration - Annex B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 정상들은 금융 포용성에 중점을 두고 여성,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이 경제성장에 동참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 포용성 관련 혁신방안 마련, 구조개혁 단행, 민관협력 구축 등을 지시하였음.
 - 정상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필요한 구조개혁 조치 실행, 정보통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 창업문화 조성, 양질의 교육과 동등한 고용기회,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조달 및 시장 접근성 개선, 창업 지원, 사업 지속성을 위한 역량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역내 무역금융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서비스 혜택을 확산하는 채널을 늘리는 등 역내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공급망에서 농어민의 역할 확대, 특히 영세업자들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 그 밖에 APEC 반부패 및 법집행 기관간 네트워크(ACT-NET: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설립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과학자,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음.

-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와 자연재해 및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이 경제 전반,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들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식량안보와 물, 에너지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가 주요 의제로 제안한 해양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지난 해 러시아는 '식량안보 강화' 를 2012년 추진의제로 선정하여 '식량안보에 관한 카잔선언문', '책임있는 농업투자 원칙', '아태 식량안보 정보 플랫폼'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3년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 개발로 이어졌음.
- 식량안보 로드맵은 공급망 연결성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2020년까지 회원국들의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 해양이슈를 주 의제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및 해안자원의 보존을 담보하는 한편, 식량안보, 빈곤퇴치, 전통문화와 지식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무역투자 원활화 등에 기여하도록 함.
- 그 밖에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과 합리화 작업에 필요한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와 자발적 상호검토 체계를 위한 방법론 개발, 민관협력을 통한 청정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활성화,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인식 제고, 역내 및 글로벌 민관 보건협력 구축,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3. 향후 전망과 과제

- 2013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세계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APEC의 역할과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위한 실천계획과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임.
-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MC9)의 성공이 매우 중대하며,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보고르목표의 이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보고르목표 달성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경제와 시장의 연계성 제고 및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9차 WTO 각료회의(MC9)의 성공적인 개최와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간이라도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와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의 사전 타결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상타결 의지를 통해 구체적인 타결방안과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WTO/DDA 협상에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만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WTO/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난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자발적인 협의체로서 APEC의 기능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APEC 내에서 개도국의 부담을 덜어주며 시범적인 타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2014년도 주요 의제로 지역경제통합, 연계성 증진, 성장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에서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아태지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역내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2008년 APEC 작업(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에서는 30개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역무역협정 간에 차이가 심한 분야로 원산지, 경쟁정책, 환경, 노동 분야를 식별한 바 있음.
 - 이제는 비교분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이 APEC 내에서의 지역경제통합에 디딤돌(building blocks)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
 - 또한 조화전략 연구에서 APEC의 작업과 WTO에서의 작업 사이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역내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실현 경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이들 논의를 조화시키는 노력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명성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간 FTA 추진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자무역체제 및 WTO 각료회의를 지지하는 별도의 선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APEC 환경상품 자유화를 계기로 WTO 환경상품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도국의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2011년 'APEC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확산 실행계획(APEC EGS Technology Dissemination Action Plan)'을 제안한 바 있고, 환경상품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주도하는 회원국으로서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민관협력(PPEGS)'을 제안하여 2013년도 정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2012년 APEC 환경상품리스트 합의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범용제품 문제, 선·개도국 간 균형적 기여, 개도국 특별대우 등을 주장한 바 있음.³⁾
 -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 4월 2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환경상품의 관세 감축과 관련 회원국들의 당면 과제를 식별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의 역량강화사업 제안서(Proposal on APEC Framework for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on Implementing APEC Environmental Goods List)를 제출하였음.

- 공급망 연결 관련 사업은 인프라 개발·투자 등 향후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체제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 APEC 사업 중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무역투자 원활화 사업은 공급망 연결 프레임워크 실행계획(SCFAP)으로 이어지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보다 체계적인 구조로 진화하였음.
 - SCFAP에서는 8개 병목점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

3) 외교통상부(2012), 『APEC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주도하에 체계적인 추진계획 및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 APEC은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MYPIDI)을 통해 기업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정부역량 강화, 금융 포용성 도입 및 확대 등 개도국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수년간 APEC 의장국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APEC 의제에는 개발과 역량격차 해소 등 개도국의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⁴⁾

4. 한국의 역할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의 주도국으로서 그 동안 추진해온 CBNI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여 역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호조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Post CBNI 사업 제안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역내 지역공동체 구상 및 건설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수요조사를 2010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역량강화사업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 추진해왔음.

- 회원국들의 역량강화 수요가 식별된 분야별로 주도국이 선정되어 2012~14년 실행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

- APEC은 회원국들이 RTAs/FTAs 체결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04년 RTAs/FTAs 모범사례를 채택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 RTAs/FTAs의 유사점과 차이점(Convergences and Divergences)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명성 증진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이들 지역무역협정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Post CBNI 사업 구상에 반영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APEC과 WTO 양쪽에서 진행된 기존의 작업 결과들을 기초로 지역무역협정 간의 조화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APEC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회원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APEC 내에서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APEC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신통상정책 기조인 상생협력을 Post CBNI 사업에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와 혁신 메커니즘을 활용한 APEC 차원의 논의 및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4) 2014년-중국, 2015년-필리핀, 2016년-페루, 2017년-베트남, 2018년-과푸아 뉴기니, 2019년-칠레, 2020년-말레이시아, 2021년-뉴질랜드, 2022년-태국

-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문제가 세계 각국의 주요 이슈인 반면, 경제성장만으로는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창조경제와 혁신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을 촉구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 o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공동 제안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국내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s requirement)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WTO 규범에 합치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일자리 창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포함하여 창조경제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장벽 및 규제의 완화, 회원국간 규제의 조화를 증진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시 우리나라는 품목별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과 역내 협력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시장개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기술이전과 같은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시장개방과 기술이전 측면에서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

■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내 인프라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자생적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개발을 포함한 ‘서울개발 컨센서스’가 발표되었으며, ASEAN도 2010년 10월 아세안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합의하고 인프라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아태지역 인프라개발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ASEAN과 다양한 인프라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4년 의장국으로서 인프라사업을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등 역내 인프라시장 확보에 관심이 많음. 일본 역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APEC에서 인프라재원에 대한 약속 이행을 강조해온 바 있음.
- 2013년 정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핵심 정책이슈가 되고 있는 MYPIDI에 한국은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역내 인프라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o 우리나라의 IT 물류시스템(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한 기차선박의 화물 관리,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개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유치 경험 공유와 기술이전을 통해 시스템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함. **KIEP**